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우유사랑! 나눔캠페인 분유전달식 현장

서울시 내 저소득층 어르신,
결식아동에게 전지분유 570포(11톤분량) 전달



지난 3월 23일(수) 서울시청 4층 복지본부장실에서 김태환 농협축산경제대표 이사, 이승호 낙농육우협회장, 이병규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 남원준 서울시 복지본부장, 서울우유협동조합 오상목 경영지원상무, 황용규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랑의 분유전달식[나눔축산운동본부(공동대표 김태환 · 이병규)주관]이 개최됐다.



이날 기부된 물량은 11톤[1억원 상당의 전지분유 570포대(20kg/포)]으로, 우유소비 사각지대인 소외계층들에게 우유를 기부하자는 취지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 축산관련 단체 등 소속 임직원과 조합원들이 참여하였다.

이승호 낙농육우협회장은 “금번 기탁으로 짧은 기간이나마 결식아동, 독거어르신들의 균형있는 영양섭취에 도움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축산에 대한 대외 이미지를 제고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낙농업계의 선행이 더욱 많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된 전지분유는 서울지역 저소득층 어르신과 결식아동들에게 전달되는데 약 11,000여명의 소외계층들이 한달간 먹을 수 있는 물량으로,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 산하 푸드뱅크를 통해 전달됐다.

한편, 나눔축산운동본부는 현재 서울우유협동조합과 부산경남우유협동조합으로부터 각각 1,000톤, 165톤의 전지분유를 기증받은 상태인데, 추가 구매를 통해 조성된 3,370 포의 분유를 산하 도지부로 분배하여[도별로 7톤(350포기량)] 4월 중 사랑의 분유 전달식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